

# 평 화 선 언

우리의 고향에는 따뜻한 가족의 생활, 인정 넘치는 지역의 유대, 계절을 물들이는 축제, 역사 속에 육성되어 온 전통문화와 건물, 아이들이 노는 강가 등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그 모든 것이 한 발의 원폭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버섯구름 아래에는 끌어안은 채 새까맣게 탄 부모와 자식, 무수한 시체가 떠있는 강, 불에 타 무너진 건물. 몇 만이라는 사람들이 불에 타 그해 연말까지 너무나도 소중한 14만 명의 생명을 빼앗기고 그중에는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미군 포로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인생이 크게 뒤틀려 버려 심각한 심신의 후유증과 차별·편견에 시달려 왔습니다. 살기 위해 도둑질이나 싸움을 거듭한 아이들, 어려서 원폭 고아가 되어 지금도 혼자 사는 남성, 피폭한 것을 들켜 이혼 당한 여성 등 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히로시마를 본래대로 돌려놓아라!” 이것은 고향과 가족, 그리고 몸도 마음도 본래대로 되돌려 달라는 피폭자의 비통한 절규입니다.

히로시마현 물산진열관으로 개관하여 100년, 피폭으로부터 70년. 역사의 증인으로서 지금도 히로시마를 응시하고 있는 원폭 돐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원폭 피해의 실상을 받아들이고 피폭자의 마음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도 1만 5천 발 이상의 핵병기가 존재하고 핵보유국 등의 위정자는 자국 중심적인 생각에 빠진 채 핵 위협에 집착하는 언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전쟁이나 핵폭발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밝혀지고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핵병기가 존재하는 한 언제 누가 피폭자가 될지 모릅니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국경을 넘어 무차별하게 확산됩니다. 전 세계 여러분, 피폭자의 증언과 히로시마의 염원을 확실히 받아들여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당시 16세의 여성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화합으로 키워가는 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 배려심, 이해심, 연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당시 12세의 남성은 “전쟁은 어른도 아이도 같은 비참함을 느낀다. 배려심, 위로, 타인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화의 원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며 ‘증오’와 ‘거부’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나온 비통한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에는 인류의 미래를 응시한 ‘인류애’와 ‘관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국적이나 민족,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넘어 같은 지구에 살고 한번뿐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비인도성의 극치’, ‘절대악’인 핵병기의 철폐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이미 젊은이들의 서명이나 투고, 행진 등 다양한 활동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큰 파도를 만듭시다.

피폭 70년이라는 중대한 시점이 되는 올해,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었습니다. 히로시마시는 피폭의 실상을 지키며 전 세계에 알리고 차세대에 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맹 도시가 6,700을 넘는 평화수장회의의 회장으로서 2020년까지 핵병기 철폐와 핵병기 금지조약의 교섭 개시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결의를 굳게 하여 매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류애’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행복 추구일 것입니다. 위정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거듭하는 것이 핵병기 철폐로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를 기반으로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폭넓은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 실현에 강한 인내심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시사하는 진정한 평화로의 길을 세계로 확산 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년 일본 이세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국 정상회의, 그에 앞서 히로시마에서의 외교장관회의는 핵병기 철폐를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위정자 여러분, 피폭지를 방문하여 피폭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피폭의 실상에 접해 주십시오. 핵병기 금지조약을 포함한 법적 틀의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다리역할로서 논의 개시를 주도해 주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히로시마를 논의와 발신의 장으로 삼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통이 된 피폭자를 비롯하여 지금 이 순간도 방사선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에 귀 기울여 지원책을 강화하고 특히 ‘검은 비 강우지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원폭 희생자의 영령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피폭자를 비롯한 선인이 지금까지 핵병기 철폐와 히로시마 부흥에 평생을 다 바쳐 진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께 결의를 새롭게 하여 함께 핵병기 철폐와 세계 항구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진력해 갈 것을 호소합니다.

2015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 Inter Group Corp.